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27-30일 광주시청 시민홀 비대면 전시

“빛고을 건축 문화 현재·미래를 한 눈에”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가 시민들을 찾아가다.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제18회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에서만 행사가 치러졌던 데 반해 올해는 오프라인 행사와 함께 온라인 전시도 병행한다.



제25회 광주시건축상 주거부문 금상 조경빈건축사

광주시건축상·건축대전 등 수상작 선배 조용준 명예교수 '자랑스런 건축인' 선정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는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한국건축가회 광주지회 3개 단체로 구성돼 매년 광주건축도시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문화제에서는 각 협회에서 진행한 다양한 공모전 수상작 300여점을 만나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전시는 광주시건축사회 광주건축상, 한국건축가회 광주시지회의 광주건축대전 수상작들이다. 광주시건축사회가 주관한 제25회 '광주건축상' 주거부문에서는 조경빈 필동2가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의 '220'작품이, 비주거부문에서는 이상도 (주)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의 '침단 와 이어즈파크 지식산업센터'가 금상을 수상했다. 한국건축가회 광주시지회가 주관한 제8회 '광주건축대전' 수상 작품으로는 일선방직 화력발

전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대상작 '더 트랙 5 12'(문시후)과 최우수상 '다시 함께하다'(최승연) 등의 수상작들을 볼 수 있다. 시민들이 참여한 작품 전시도 열린다. 광주·전남 지역 내 건축·도시·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광주건축도시 사진 공모전, '꿈꾸는 집, 탐험대'를 주제로 유치원생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열렸던 그림 그리기 대회 등이다.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전시도 눈여겨볼 만하다. 광주·전남건축가회 공공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변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요소들을 개선해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이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밖에도 현대건축의 트렌드와 세계 건축가들의 건축 철학을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올해의 건축가 70인전', 광주전남 건축공학과 학

생들의 우수 작품전, 건축민원 무료 상담 등이 열린다. 오는 29일 오후 3시 전일빌딩에서는 함인선 광주총괄건축가가 강연자로 나서 '공생상생 : 서로 함께하여 상상하는 건축'을 주제로 건축도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한편, 매년 지역 건축발전에 공로를 세운 사람을 선정해 시상하는 올해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에는 조용준 조선대 명예교수가 선정됐다. 조 교수는 광주도시공사 사장, 한국 주거학회 회장, 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일본도시주택학회에서 공로상과 학술상을, 한국 주거학회 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27일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문화제 전시는 12월31일까지 비대면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한 번 웃어서 말없이 푸른 물 굽어보네

장희구 박사 (430)
漢詩 향기품은 변안시조

축석루 우측엔 정약용의 '의기사'와 '의기사중건기' 시 1수가 판각돼 걸렸다. 의기사 입구에 논개의 충절을 찬양한 [의랑 논개의 비]는 개천예술제의 창시자이자, 지방 향토 시인인 설창수가 1954년 글을 짓고, 오제봉이 글을 썼다고 했다. 또한 진주성 입구에는 변영로의 '논개사비'가 서 있어 의기를 연상하게 된다. 지난 일들이 아득해라 동우리 안의 학은 이제 늙고, 나그네 회포 일렁여라 들 구름만 떠나간다면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한 번 웃어서 말없이 푸른 물 굽어보네'(蘊石樓2)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후구인 칠언율시다. 작가는 퇴계 이황(李滉:1501-1570)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유학자다. 1549년 병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나 토계 인근에 한서암을 지어 그곳을 거처로 삼았다. 1551년 계상서당을 지어 후학을 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지난 일들이 아득해라 동우리 안의 학은 늙고 / 나그네 회포 일렁여라 들 구름만 떠나가네 // 변화한 것은 사상(詩想)에 들어오지 않나니 / 한 번 웃어서 말없이 푸른 물 굽어보네]라는 한 덩어리 시상이다. 위 시제는 [축석루에 올라서서2]로 번역된다. 1365년(공민왕 14년)에 처음 건립됐으며 7차례의 중건과 보수를 거쳤다. 축석루는 본래 전쟁이 일어나면 유사시 진주성을 지키는 지휘본부 또는 경상수도 군사를 지휘하는 지휘본부였다. 시인은 첫 구에서 [강호에 떨어져 살았던 지 며칠이나 되었던고 / 거닐다가 시를 읊고 높은 누에 올라 보네 // 공중에 비끼는 비 한 때의 변화라고 한다면 / 눈에 드는 긴 강은 만고의 흐름이려네]라고 했다.

蘊石樓(축석루)2
퇴계 이황
지난 일 아득해라 동우리 학은 늙고 일렁이는 회포에 들 구름만 흐르는데 번잡에 시상은 없고 푸른 물 굽어보네.
往事蒼茫鶴老 懷搖蕩野雲浮
曠山蒼翠學老 孤岫無言俯碧洲
繁華不屬詩人料 一笑無言俯碧洲
변화불속시인으로 일사무언부벽주

시 인은 선경에서 늙은 학을 은근하게 생각 하더 니만, 회포를 푸는 방법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 시상이다. 지난 일 아득해라 동우리의 학은 점점 늙어 가고, 나그네 회포 하나 일렁이며 들감을 지나는 구름만 멀리 떠나간다고 했다. 자연의 적절한 묘사가 대학자의 눈에는 마냥 새롭게만 보였던 모양이다. 화자는 축석루를 보면서 너무 변화해 차마 눈에는 다 들어오지 않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다는 심회를 피력하고 있다. 변화한 것은 막상 사상(詩想)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니 한 번 웃어 말없이 푸른 물을 굽어본다고 했다. 자연이 너무 아름다우면 시상도 막혔음을 심회했다.

*한자와 어구
往事: 지난 일. 蒼茫: (지난 일이) 아득하기만 해라. 鶴老: 동우리의 학이 늙다. 懷: 나그네의 회포. 搖蕩: 일렁이다. 흔들려 움직이다. 野雲浮: 들 구름이 떠가다. // 繁華: 번화하다. 不屬: 속하지 않다. 詩人料: 시상에 들어오다. 一笑: 한 번 웃다. 無言: 말없다. 俯碧洲: 푸른 물을 굽어보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 (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라트비아사로잡은 이이남 미디어아트

오는 28일까지 리가 시내 미디어얼 활용...11개 작품 선배
한-라트비아 수교 30주년 기념 '이이남, 뿌리들의 일어섬'展



이이남 작 '박연폭포'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전시 중인 라트비아 수도 리가의 Origo 중앙 기차역 앞 오거리 광장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의 작품이 유럽 발트해 라트비아에서 펼쳐진다. 이 작가는 오는 28일까지 한-라트비아 수교 30주년 기념 미디어아트 전시 '이이남, 뿌리들의 일어섬'전에 참여한다. 전시 장소는 Origo 중앙 기차역 앞 오거리와 Spice 쇼핑몰 옆 삼거리, Vansu 다리 건너편 대로 등 라트비아 수도 리가 시내다. 주한라트비아 대사관은 한국 예술과 그 위상을 널리 알리고자 미디어아트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한국 대표로 이이남 작가를 초청했다. 이번 전시 작품은 '박연폭포'를 비롯해 '신·금강전도', '인왕제색도-사계' 등 총 11점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겸재 정선과 안견 등의

작품을 디지털로 재해석했으며 경계를 초월해 소통하고 융합되는 과정 속 만들어지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피어나는 양국의 밝은 미래를 미디어아트에 담았다. 분량은 11개 작품을 대상으로 한 작품당 1분씩이다. 주한라트비아 대사는 "이이남 작가는 한국의 조선시대 유명 동양화 작품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새롭게 조명함과 동시에 미래와 접목시켜 독창적인 작품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한국-라트비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국의 과거와 미래의 미술세계를 그와 함께 소개할 수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한편, 벨기에 한국문화원 초청으로 '한-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개인전'을 가진 이이남 작가는 최근까지 카자흐스탄, 스페인 마드리드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해외 전시회에 참여했다. /최명진 기자

광주시립합창단 '맛깔난 음악 밥상 차린다'

28일 광주문화회관서 정기연주회

맛깔난 우리 음식들을 노래로 한 상 가득 차려낸 유쾌하고 정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광주시립합창단 제187회 정기연주회 '맛깔난 우리 식탁' 공연이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1부에서는 ▲구수한 비빔밥 ▲팔팔팔팔 아물전을, 2부에서는 ▲해질녘 원두막 ▲그리움의 들녘 ▲회한의 언덕 저편 ▲사랑 그 청순함에 대하여 등 각 주제에 맞는 '맛깔난' 공연을 선보

인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우리네 서민 음식들을 맛깔난 합창음악의 밥상으로 차린다. 군침 도는 가사와 리듬이 듣는 재미를 더한다. 2부에서는 한 해를 살아내며 겪은 희로애락의 무게들을 하나둘씩 꺼내는 힐링의 무대다. 깊어가는 가을밤 감성을 두드리는 노래들로 그리움과 사랑을 노래한다. '가을꽃', '들국화' 등 서정적 아름다운 곡들이 준비됐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바디프랜드, 휴테크, 사파머신, 브람스, 국산 오레스트 안마의자 전국 최저가 할인매장, 할인 이벤트!



바디프랜드 IMPERIAL
바디프랜드의 기술력으로 선보이는 3D 안마의자

나만의 감각적인 체어

주요기능: 자동체형 인식 | 다리길이 조절 | S&L프레임 | 전신 에어안마 | 어깨 간격 조절 3단계 기능 | 온열기능 | 스릴 각도 조절 기능 | 14가지 자동모드

휴테크 카이SLS7 / HT-M340
당신이 생각한 모든 것
또 다른 초월의 탄생

나만의 힐링 체어

주요기능: 3D 입체 안마 | 음파진동 모드 | 하이퍼 S&L 프레임 | 슬라이딩 기능 | 헤드 지압 마사지 | 듀얼에어펌프 | 100개 에어셀 | 자동체형인식 | 22가지 자동모드 | 3단계 무중력기능 | 온열기능 | 뮤직플레이기능 | 무중력 안마

슈퍼체어 OBERON+
3D마사지로 더 섬세해진
오베론+

나만의 프리미엄 체어

주요기능: 3단무중력 | LS프레임 | 세이빙스페이스 | 자동 체형인식 | 7가지자동모드 | 전신마사지 | 에어밴드마사지 | 다리길이조절 | 발바닥롤링 | 블루투스연결 | 종아리마사지 | 3D마사지 | 히리온열기능 | 슬라이딩방식 | 지퍼베니스트

오레스트 OR-3000
실속있는 가성비 최고의
All in one 안마의자

나만의 가성비 체어

주요기능: 스마트한 마사지를 | 인체공학적인 프레임 | 온열 기능 | 전신 에어마사지 | 다리길이 조절 기능 | 무중력 기능